

## ■ 주요 기사

### ○ 문재인 일자리 공약 관련 (1건)

중앙

[\[팩트체커 뉴스\] 문재인 '공공 일자리 81만개' 공약 ... 21조 비용엔 연금 미포함](#)

### ○ 시중은행, 유사 성과연봉제 실험 확대 (1건)

조선

[성과제 주춤한 은행, 1억 인센티브 내건 이유는...](#)

## ■ 주요 칼럼 · 사설

### ○ 정치권과 노조 관련 (1건)

중앙

[\[서소문 포럼\] 외상전 스트레스증후군을 걷어내려면](#)

### ○ 자동차산업,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(1건)

중앙

[\[경제 view &\]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바뀌야 살아남는다](#)

### ○ 노동시간 단축 관련 (1건)

경향

[\[기고\]'노동시간 단축'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<김종진 | 한국노동사회연구회 연구위원>](#)

### ○ 대선주자, 일자리 공약 관련 (1건)

한경

[\[하영춘의 이슈프리즘\] 일자리 창출? 트럼프에게 배워라](#)

### ○ 제주도 전기차 사용 관련 (1건)

매경

[\[기자 24시\] 탄소 제로 섬 제주의 허상](#)

■ 언론별 동향

매체명	주 제	내 용	
조선	노동	제목	<a href="#">성과제 주춤한 은행, 1억 인센티브 내건 이유는...</a> B1면
		내용	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확산 방침에 발맞춰 전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던 시중은행들이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'유사 성과연봉제'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.
중앙	노동	제목	<a href="#">[서소문 포럼] 외상전 스트레스증후군을 걷어내려면</a> A28면
		내용	정치권은 외상전 스트레스증후군에서도 중증 환자군이다. 그들이 대기업 노조에 상생을 강하게 요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. 표 떨어질까 봐서다.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를 달래는 데 더 열심이다. 정치권이 이러한 동안 실업은 만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.
	제목	<a href="#">[경제 view &amp;]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바뀌야 살아남는다</a> E10면	
	내용	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,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간 교섭력 균형에 따른 임금-고용 패키지 협상, 3~4년 단위의 임금협약, 성과형 임금체제, 유연한 고용과 근로형태 등 선진 경쟁국수준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모두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.	
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[팩트체커 뉴스] 문재인 '공공 일자리 81만개' 공약 ... 21조 비용엔 연금 미포함</a> A10면	
	내용	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일자리 공약에 대해 경쟁자들은 "81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결국 증세하자는 주장"(안철수), "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"(유승민)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.	
한경	노동	제목	<a href="#">분사 앞둔 현대중공업, 노조 장외투쟁에 '몸살'</a> 11면
		내용	현대중공업이 오는 4월 분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장외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. 노조는 현대중공업 분사로 인력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치권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 등과 연대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.
	고용 복지	제목	<a href="#">직장 어린이집 설치 '벌금 효과'</a> 9면
		내용	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전년보다 30%포인트 가까이 오른 81.3%로 조사됐다.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36개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.
제목	<a href="#">[하영춘의 이슈프리즘] 일자리 창출? 트럼프에게 배워라</a> 34면		
내용	하영춘 편집국 부국장,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원회 없는 정권이 출범한다. 각종 로비에 시달리지 않고 공약을 바로 실천할 수 있어 역설적으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. 예측불허의 트럼프라지만, 배울 건 배워야 한다. 일자리 정책만큼은 특히 그렇다.		

매체명	주 제	내 용	
매경	환경	제목	<a href="#">[기자 24시] 탄소 제로 섬 제주의 허상</a> 34면
		내용	관광지와 가까운 충전소에는 항상 3~4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. 한 대 충전에 통상 30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~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. 겨울에도 이런데 성수기에는 어떨까 생각하니 끔찍
경향	노동	제목	<a href="#">[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](1)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,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</a> 1면
		내용	재미있는 게임, 가파른 성장이란 화려함 뒤에서 게임산업의 젊은 노동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. 지난해 게임업체 넷마블에서는 3명이 사망했다.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, 두 명은 돌연한 죽음이었다.
		제목	<a href="#">[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](1)“밤 10시 퇴근은 반차, 12시가 칼퇴, 새벽 2시 넘어야 잔업”</a> 3면
		내용	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자 그룹에 1주일 기준 야근 횟수를 물은 결과,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.3%로 절반에 가까웠다. 대부분의 직원들에겐 주말도 큰 의미가 없다.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(22.0%)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.
		제목	<a href="#">[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](1)“열정 같은 소리 말고, 수당 제대로 달라</a> 3면
		내용	게임 업계 종사자들은 야근과 휴일 근무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.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를 보면, 장시간 노동에 따른 추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73.9%에 달했다.
제목	<a href="#">[기고]‘노동시간 단축’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&lt;김종진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&gt;</a> 29면		
내용	서울시의 노동시간 단축 모델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의미가 적지 않다. 향후 민간위탁 등 소규모 사업장에 주4일제나 1일 7시간 근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논의한다고 한다.		

※ 동아, 한겨레 관련기사 없음

<끝>